

“5·18 명예회복처럼 10·27법난 처리도”

광주 시민들, 10·27법난 지역강연회서 한 목소리

“어릴 적 겪었던 5·18의 아픈 상처들이 불교에서도 일어났던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불교계의 명예회복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1980년 10월 27일 새벽, 전국 5000여 곳의 사찰에 계엄군과 경찰 3만 2천여 명이 일제히 들이닥쳤다. 신성한 법당은 군화 발에 짓밟히고, 2000여 명의 스님과 신도들은 감금과 연행이 되고, 그중 일부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국가는 한국불교를 마치 사회악인양 매도하였다. 바로 ‘10·27법난’이다.

그로부터 33년이 흐른 지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빛고를 광주에서는 12월 19일 라마다호텔에서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한 ‘10·27법난 지역순회 강연 및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2008년 2월 국회에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설치된데 이어 법난 상황을 일반불자들이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일환이다.

이날 지역강연회는 지난 12월 4일 열린 울산강연에 이은 두 번째다. 10·27법난

당시 큰 고초를 겪은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의 특별강연과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 10·27법난 관련 영상시청 등이 진행됐다.

원행 스님은 이날 강연회에서 “역사는 역사를 먹고산다. 역사를 도외시하는 민족과 국가는 결코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스님

500여 광주시민 모여 법난 상황 정경 피해자 스님 “다시 일어나선 안될 일” 시민들 “불교 명예회복 적극 나서야”

은 이어 “10·27법난과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불교의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총무원 사회부장 보좌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화엄사 주지 영관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 등 본말사 주지 50여 명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무상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다시는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교계가 단결해야 한다”며 “오늘 강연회를 통해 법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은 10·27법난에 대해 처음 접하는 불자들이 또한 놀라움을 표했다. 특히 5·18민중항쟁을 겪은 광주지역 불자들은 당시 군부에 의해 진행될 수많은 만행들에 대해 울분과 함께 분노를 표출했다. 광주 주월동에 거주하는 신주영 씨는 “어릴 적 겪었던 5·18의 아픈 상처들이 불교에서도 일어난 것을 처음 알았다”며



12월 19일 광주 라마다 호텔에는 500여 대중이 모여 한목소리로 10·27법난으로 피해를 받은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촉구했다.

“빠른 시간 안에 명예회복을 통해 고통받았던 불교계가 치유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당시 종단스님 9,700여 명을 일괄적으로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을 신청하고, 10,27법난 역사교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6년 6월 30일까지 법난심의위원회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심사기간도 201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전남포교사단 전진대회 및 단장 취임식

군부대, 교도소, 복지시설 등 포교 곳곳에서 활동을 펼치는 포교사들의 한마당행사가 펼쳐졌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은 12월 14일 동구 수자타에서 ‘불기 2557년 광주전남 포교사 전진대회 및 제7·8대 단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이날 행사에는 제8대 신임단장인 김정연 포교사(사진)가 취임식과 함께 2013년 우수 포교사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법규위원장 풍산 스님, 포교국장 노후 스님과 불교시행단체 회원을 비롯한 200여 포교사들이 동참했다.

김정연 신임단장은 취임사에서 “포교의 핵심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인류사에서 찾을 수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생활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며, 끝없는 정진장을

조했다. 한편 이날 전진대회에서 중앙단 총재상에 이현아, 중앙단장상 정동숙, 지역단장상에 채순이, 서승유, 김락중, 박기환, 강진우, 손복순, 신면호, 최현기 포교사가 수상했다. 이어 감사패를 각안스님, 정민순, 장정자, 공로패가 임영광, 김경영, 강막례, 조현옥, 조기남 포교사에게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 6회 복운문화축제 및 송년행사

선운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시설장 도완)은 12월 19일 한해동안 복지관을 위해 몸살양면으로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지역주민과 자원봉사자, 후원자 300여명을 초청해 ‘제 6회 복운문화축제 및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부 기념식과 발표회, 전시회에 이어 2부 송년행사로 나누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도완 스님은 “배움에 모든 열정을 쏟은 모든 분들이 발표회를 통해 화합과 소통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지역에서 수행되는 복지사업을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주고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문화교육 프로그램 발표회는 연

극, 실버악단, 합창, 발리댄스, 난타 등 ‘열정’과 ‘기’를 마음껏 발산하는 다채로운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대행사로 한지 공예, 서예, 문인화 등 작품전시회가 열려 지역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혔다. 또 백로다회 등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장 전달과 후원업체 (주)고창 황토배기유통과(사)고창말밭회와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불교회관 보각 스님 초청법회

전북불교회관 보현사(원감 보통)은 12월 15일 4층 큰 법당에서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장 보각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속에서 신생활과 불법수호에 노고가 많은 지역 불자들을 위해 법회를 마련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신생활과 지역 불교 발전을 위해 불자들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김백호 신도회장은 지역불교 발전을 염원하며 전국의 선지식을 초청해 정기적인 법회를 열고 있다.

보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고통의 근원은 나라고 하는 집착에서 비롯된다”며 “집착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참 나를 찾는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된

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몸뚱이는 음식을 먹고 살고 마음은 기도를 먹고산다. 날마다 내 마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어리석은 마음으로 가득차게 된다. 좌우명을 소개하고 “늘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수행하는 가치있는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비의 김치 1만 6000포기, ‘남미륵사’ 화제

전남 최대 김장 보시, 강진·장흥 지역에 전달

동양 최대 규모의 아마타좌불상이 모셔져 있는 강진 남미륵사가 전남지역 최대 규모의 김장을 담가 지역 소외이웃들에게 전달해 화제다.



강진 남미륵사 주지 석범홍 스님이 남미륵사를 찾은 강진원 강진군수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남미륵사 신도들은 직접 강진·장흥 지역에 김치 1만 6000포기와 쌀 400가마를 전달했다.

세계불교미륵대중 남미륵사(주지 석범홍)는 12월 11~18일 일주일간 신도 대중 300여 명이 김장 1만 6000포기를 담가 19일 강진군청에 전달했다.

남미륵사는 매년 연말 결손가정과 독거 어르신 가정 등에 불우이웃돕기의 일환으로 이불과 쌀 등 물품과 장학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김장김치 5kg 600박스를 비롯해 10kg 쌀 400가마 등이 전달됐다. 전달식 이후 남미륵사 신도들은 강진·장흥지역의 각 면단위로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남미륵사 주지 석범홍 스님은 “사찰을 창건한 이후 대중에 회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다. 지역 어르신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은 불제자로서의 의무 해야 할 일”이라며 “향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많은 김장을 담그면서 묵묵히 함

1주 간 사찰 신도 300여 명이 담가 쌀 400가마와 함께 강진군청 전달

께 해준 신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위치한 강진 남미륵사는 1980년 석범홍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동양 최대 규모의 36미터 황동 아마타좌불상을 비롯해 18미터 해수관음상 등을 모시고 있다. 한국식 대웅전을 비롯해, 중국풍 관음전과 사각 33층 석탑, 인도풍 만불전 등 한국과 중국, 인도



강진 남미륵사의 아마타좌불상

의 세부분으로 구성돼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규모 사찰부지에 사찰 속에 마을이 함께 있는 독특한 곳이다. 노덕현 기자

전남문화재연구소

2014년 1월 8일 개소

전남지역의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조사하고 보존하는 문화재연구소가 공식 출범한다.

전남문화예술회관은 부설단체인 전남문화재연구소를 무안 심향후 후광대로 전남개발빌딩 4층에 연구소를 마련, 2014년 1월 8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전남문화재연구소는 개소를 기념해 내년 상반기에 유적정비와 발굴을 비롯, 서남해 도서지역의 고고역사와 관련된 학술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내 고고학, 고대사와 관련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지역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학술지 발간, 문화재 체험 및 답사, 도민강좌 등 사회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에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국보 20개, 보물 167개 등 모두 1101개의 중요 문화재가 있다.

정광덕 전남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지역개발에 따라 훼손 우려가 있는 문화재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향토사 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제의 신간 명당발복의 이천년 신비를 과학이 밝혀냈다

명당발복의 신비

★ 대통령과 재벌을 원한다면 대명당인 천조명당(天造明堂)을 구하라!
★ 가문의 영광과 부귀영화를 바란다면 지조명당(地造明堂)을 구하라!
★ 소문난 맛집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면 인조명당(人造明堂)을 구하라!

● 풍수지리(風水地理) 이천년 역사상 최초로 명당(明堂)의 땅 속 형상(形象)이 과학기술(科學技術)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명당의 실제(實體)와 명당의 크고 작음(명당자리의 大小)을 판단(判斷)할 수 있는 방법(方法)을 처음으로 이 책을 통해서 만천하(滿天下)에 공개한다.

● 명당이 명당을 불러들이는 신비한 현상(現象) 즉, 음택명당(陰宅明堂)이 양택명당(陽宅明堂)을 불러들이는 명당발복(明堂發福)의 시너지 효과(效果)를 만들어 내는 명당발복의 신비(神祕)한 비밀이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적나라(赤裸裸)하게 벗겨지게 되었다.

■ 통권 51책 / 신국판 / 516쪽 / 정가 25,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가동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쁨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감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승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범수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방향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주를 보는 인목이 한순간 확득일 것이다. 수십년 공부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고민이 한순간 해결된다. 명리학의 핵심은 용신이며 화신과 기신의 작용이다. 용신이란 부귀, 천과 운세를 보는 열쇠가 된다. 가장쉬운 용신을 모르고 사주의 병과 약을 모르고 있다.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송월스님 저 / 신국판 / 양장본 / 66쪽 / 정가 75,000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 과정	교육 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학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제기동 02-966-0020	창원 055-243-6333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